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에스라
· 느헤미야
구역예배 · 데살로니가후서
남성구역예배 · 로마서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에스라
· 느헤미야
구역예배 · 데살로니가후서
남성구역예배 · 로마서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주의 사랑이 물드는 계절에



새벽과 저녁으로는 이미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추수의 기쁨이 여느 해보다 유난히 더 큰 이유는 거친 태풍의 뒤편길에서 얻어지는 값진 수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감사가 참된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올 가을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될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총현의 성도들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을날의 곱고 아름다운 단풍처럼 물들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과 영혼을 향한 열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젖어들도록 말이지요.

사랑하는 총현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우리의 모임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충성스러운 언덕에 곱디고운 믿음의 하모니가 번져나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2000년 10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에스라 서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왕국시대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역사서이다. 그래서 역대하 36:22, 23 말씀이 에스라 1:1-3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즉 유다가 최후로 망하고 난 뒤, 70년의 포로생활 후, 그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 귀환과 영적 부흥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로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의 학사인 에스라가 백성을 인솔하여 2차로 귀환하여 백성들의 심령에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며, 마지막 3차로 느헤미아가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여 성벽을 건축하게 된다.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배경에 있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생각해야 할 진리는 이스라엘의 포로시기는 그들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기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아가 술관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가! 아무쪼록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깨닫고,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사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기 바란다.

주요내용

1장 - 6장 :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①1장-3장 : 성전 재건의 임무

㉠1장 : 고레스의 포로 귀환 선포

㉡2장 : 성전재건을 위한 인구조사

㉢3장 : 성전재건을 위한 일치와 연합

②4장-6장 : 성전의 완성

㉣4장 : 건축자들의 불평

㉤5장 : 건축자들을 새로 세움

㉥6장 : 재건된 성전

7장 - 10장 :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과 백성의 영적 회복

①7장-8장 : 제사장들과 나그네들

㉦7장 : 에스라의 출발과 아닥사스다의 조서

㉧8장 : 에스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보호

②9장-10장 : 백성들의 죄악과 정결하게 만듦

㉨9장 : 잡혼의 문제와 번민

㉩10장 : 백성들의 회개와 반대자들에 대한 기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범죄하
면 주어진 기업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앗수르
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는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차자, 이미 하신 바 그 말씀을 성취시
하고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맞추어 일하시며 어떤 경우
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의 회복을 위하여 순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고레스
가 유독 유대인만을 편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정책을 취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고레스는 매우 포괄적인 종교 정
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안에서 진행됨을 볼 수
있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858 50 400

50 400 858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고레스는 매우 포괄적인 종교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레스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대인들이 이전의 종교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었으며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약속하는 조서를 온 나라에 공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신 바를 인간 역사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매우 치밀하고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므로 정확하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레스의 조서를 듣자마자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할 사역자들을 미리 준비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여 사역할 자들을 남겨 놓으십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각 분야의 사람들을 모두 준비시키셨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여 사역할 자들을 남겨 놓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께 감동하심을 입은 사역자들을 보내어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국력이 약했거나 국제 정세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멸망과 사로잡힘은 이미 예견되고 경고된 사항이었습니다(왕상9:6-7; 대하36:17).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70년이나 포로생활을 했으면서도 놓임받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왕상8:48-49, 11:36).

본장의 상반부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본토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족속들과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 솔로몬의 신복들 등 이들에 대한 명단을 제시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포로가 된지 70년이나 지났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귀환해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환에 참여하는 일에는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렘 29:4-6; 예9:18-19).

귀환과 회복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기인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인의 각계 각층의 명단을 소개해 나가던 기자는 본 단락에 이르러서 보계를 증거할 수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원래부터 개방적이었기에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제사장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 없는 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계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출12:37-38, 40:13).

이렇게 보계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에 대한 결정은 그들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도 흠이 있거나 부정한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었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도가 부정에서부터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해 또 한가지 제시된 조건은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까지는 지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물과 지성물을 다 먹을 수 없었고, 부정한 자는 성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정에서 정결케 되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레22:4-7).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 즉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 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히4:15).

정결케 되는 것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케 하소서. ② 총천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스 2:65-67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42,360 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 명, 그 외에 말 736필, 노새 245필, 약대 435필, 나귀 6,720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에 노비까지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예상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이들의 회복은 그리 풍성하지는 않았으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출12:35-36; 사60:5).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 가운데 몇몇은 다시금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과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왔으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재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으며, 그들의 힘이 닿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고후9:7,8:12).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성전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환의 준비에서 도착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재건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성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해야 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성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극복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스2:70).

성전 건축을 위해 즐거이 예물 드리는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신실과 섭리를 믿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묘사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여호와와 성전 지대가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단을 만들고 초막절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다 70년 포로의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또 다른 이유는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3절). 그들이 하나님께 나온 동기가 온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모였고(1절),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헌신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5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가 각기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뿐 아니라,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예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방탕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한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귀 환한지 2년 2개월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초막절을 지킨 후에, 대략 7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성전지대를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회복시키는 일에 한 마음과 열심을 품고 조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성전 지대 놓는 일에 감독으로 세워진 자들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송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극한의 슬픔이 동시에 교차되었습니다(13절).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했던 모습과 오늘 황폐화되어 버린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었고, 이러한 황폐화되어 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니 노인들은 통곡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동이 있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한다는 소식을 대적자들이 듣고 성전 재건 작업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제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은 사마리아 인들로서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앗수르 왕 에살핫돈(주전 681-669년)은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던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주변 여러 곳으로부터 이주민을 정착 시켰습니다(2절). 따라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혼혈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대적자들의 흥미로운 제안에 미혹당하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거절하였던 것입니다(3절). 유다 지도자들은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힐 의도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거룩함으로 해야합니다. 대적자들의 방해는 바사와 고레스로부터 다리오가 즉위할때까지 약20년에 이르는 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바사의 여러 의사들(왕궁의 관리들)을 포섭하여 여러 모양으로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5-6절). 본문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삶의 순수성에 해가 될지 모르는 그 어떤 타협도 철저히 배격해야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벧전5:8)

기도 제목 / ① 나의 영적 대적자들에게 즉각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진 고소문에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바사 제국에 큰 해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유다 백성들의 세력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바사에 대한 조공과 세금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11-13). 그들은 그 근거로 바벨론 제국 시절 끝까지 대적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15절).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중단 of 조서를 공포하자 르호와 심새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성전 재건 사역을 중단시켰습니다.(17-24) 그 결과 큰 희망중에 시작하였던 성전 재건의 노력은 일시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이 진리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명에 충성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성경은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그 영광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전 중단은 잠깐이며 미래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한 한발 후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애가3:24).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점점 약해지는 이 시대에 새 힘을 주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은 바사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즉위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다리오왕 2년 주전520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 역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명하셨습니다(슥4:6-9). 따라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책망과 격려에 힘을 얻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바사 제국의 총독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3절).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전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지적한 대로 앞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침체, 나태 등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다가 여러가지 시험과 죄악들로 인하여 신앙이 중단되어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열심을 내려고 하지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모든 것 위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깨워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마리안들의 방해공작으로 성전 재건 작업은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성전재건 사역의 합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8절). 또한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사실을 알려주었고(11절),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죄를 벌하신다고 하였습니다(12절).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왕이 된 첫 해에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촉구하였습니다(13절).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성전의 금, 은, 기구들을 돌려주었다고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14-15).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오히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재건을 방해하려는 편지는 오히려 이스라엘인들을 격려하게 되었고 정상적으로 성전건축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대적의 방해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해물을 다 제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환경도 주님께서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막힌 길을 형통한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분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삼상2:30)

하나님은 막힌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일시 난제가 생겼다가도 그 일이 마침내 형통합니다. 다리오 왕의 지시에 의해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었습니다(3-6절) 고레스왕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길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종교가 멸망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70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여호와와 성전과 그 모든 시설들이 복구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리오왕이 친히 고레스의 조서를 뒷받침하여 재 강조합니다(6-12).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원조를 확고히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방해공작이 도리어 이스라엘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합니다. 여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세밀합니다. 주변의 여러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성전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봉헌식은 '헌납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봉헌식을 하나님께 '즐거이' 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예배의 모범입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혹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자들이었으니 가난한 과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무교절을 즐거움으로 지켰습니다. 그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22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에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와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성전건축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즐겁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나를 살려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라의 족보가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술자로서 자기의 역사적 위치를 명확히 밝혀 줍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모세의 율법을 잘 알 뿐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진 학사였습니다(10절). 또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였습니다.(6절)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였습니다.(6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4개월이 걸리는 먼 길이었고 사막과 강도들이 매복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동행자들과 함께 신앙으로 군대의 호송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9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가운데 거할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와와 그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학사인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왕이 내린 조서 초본의 내용입니다.

율법과 경건의 질서를 떠났던 이스라엘이 이제 조국에 돌아가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먼저 율법 교육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 이때에 에스라는 가장 적절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사 왕이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이라고 칭합니다. 에스라의 경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가리워두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히 드러내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12절)

에스라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27,28절) 포로귀환과 성전건축의 모든 일정이 자신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라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여건과 환경마저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인들의 명단과 수효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귀환(스1장 - 6장)은 주전 537년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루어지는데, 회중 42,360명 등 노비와 노래하는 자까지 모두 49,897명이 귀환하여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스7장-10장)은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 집니다. 숫자는 남자 1,469명 외에 레위인과 수종자들을 합쳐서 도합 1,750여명이 귀환합니다. 이 때는 이방인과 통혼으로 인해 상실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신앙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3차 귀환(느1장-13장)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루어 집니다. 이 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어 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와 족장들의 이름은 영광스럽게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 1,450km나 되는 긴 여행길을 무려 4개월 동안(스7:9) 여행하여야 했으며 그 길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8:31)을 무릅쓴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험난한 길을 거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록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라는 귀환의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즉 귀환자들 가운데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레위인을 불러모으는 일(15-20절)과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기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21-23절) 믿음의 준비입니다. 에스라가 준비하는 2차 귀환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장차 있을 성전 제사와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입니다.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 레위인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사람 40여명과 레위 사람에게 시중드는 르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확보하는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성전 제사의 회복(예배의 회복)이 신앙 회복의 지름길이며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는 귀환 여행시에 있을 대적자들과 방해자들의 위협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김으로써 순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특명(7:55)으로 팔레스타인에 파견되는 신분이었으므로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자 하나님의 응락하심으로 순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시118:8-9)”라고 고백한 시편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를 바라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참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모든 삶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사 정부와 바벨론에 계속 남아 있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25절). 에스라는 그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운반해야 하는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①팔레스타인 도착까지의 취급방법(24-30절) ② 팔레스타인 도착후의 취급방법(31-3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은이 650달란트(24.5톤)였으며, 그 외에도 은 기명, 금, 금잔, 보배로운 놋그릇 등 매우 많았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사장의 두목 중 12명을 따로 뽑아 정확하게 달아서 맡겼습니다(25절). 에스라 자신이 재물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강한 권력으로 더 쉽게 개혁의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에 의하여 영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게 달아서 나누어 맡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삼 일 동안 유하며 여장을 풀었습니다(31절). 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서 은금 기명을 정확하게 달아서 제사장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제사를 드리고 왕의 조서를 전달합니다. 재물에 대하여 가장 투명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물질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결케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며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1-2절).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방 혼인을 한 것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신7:1-4). 이는 이방여인과 결혼한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우상숭배와 종교적 혼합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종교 다원주의'라는 미명으로 다가오는 종교 혼합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에스라는 매우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3절). 그가 옷을 찢으며 털을 뜯고 기가 막혀 앓은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背恩忘德)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명약관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깊이 괴로워하자 그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달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모여들었습니다(4절).

에스라는 경건한 슬픔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죄를 엄숙히 자백하며 기도합니다(5-15절). 먼저 그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이니이다”고 하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시인합니다(6절).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엄하신 진노를 가져오는 것(7절)과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상기합니다(8-9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롬5:20).

타협과 혼합은 부패를 불러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와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현지사역이 더욱 알차지고 확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라의 통회하는 기도(9:5-15)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통곡하며 모여 들었습니다(1절). 그 중 스가냐는 개혁 운동을 일으킬 것을 건의합니다(2-4절). 그 내용은 이방 여인과 통혼 한 범죄를 시인하는 것(2절)과 아내 되었던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내어 보내겠다는 것입니다(3절).

에스라는 즉각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금방 호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5절).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삼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7-8절). 그는 왕으로부터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7:26)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파문시키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해진 기한에 백성이 모두 모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리심으로(9,13절) 당신의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모든 우상에서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방 아내와 헤어지도록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이다"(12절)하고 대답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죄를 떠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진 다음, 에스라는 그 시행 방법에 대하여서는 방백들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할 때도,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 / ① 죄를 끊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수단)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직이 적음 잘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날마다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요, 신앙의 개혁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의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어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심히 통곡하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은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신앙의 개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진행해 갑니다.

에스라는 개혁을 위해 먼저 조사부터 합니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확하게 조사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한 투철한 개혁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정확히 죄를 회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16-17절).

그의 조사에 따라 잡혼자는 11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사장이 17명, 레위인이 10명, 일반인이 8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으니 그 시대의 최악이 관영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18-22절). 그러나 느다임인은 불과 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보다도 오히려 성직자들의 불경건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개혁으로 선민의 민족 혈통이 보존되었고, 다윗 혈통을 통한 메시아 혈통의 순결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8-44절). 하나님은 육체적 성결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숭배의 신앙적 성결의 근본적인 것을 요청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소서. ② 이수경, 오경진, 한정은 평신도 단기선교사들(수리남)이 건강하고 원주민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애국자라고 자칭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나라 살림을 어렵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참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동족들의 형편을 전해들은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5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백성을 도우시며,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자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편견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6-7절).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지만 의는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보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멀리 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10-11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까 두려워하라”(히 12:15)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와 민족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비록 나의 죄는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참회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② 권영일, 박수인 평신도 단기선교사(수단)이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컴퓨터학교 사역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근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이 그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위한 영적인 근심이었습니다(1-3절). 고국에 돌아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근심이었습니다(4-5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근심이었습니다(6-8절).

본문은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전을 중건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국의 황폐와 성전건축을 위해 몸이 상하도록 근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어 그의 근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자신의 근심을 선뜻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왕을 통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4-5절).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고(6-8절),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근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사41:10).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도록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려고 염려하며 서두르십니까?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영적인 근심을 주옵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두어 사람과 함께 골짜기문→용정→분문→샘문→왕의 못→골짜기 문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소문과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를 비밀리에 직접 시찰하여 현실 그대로 파악을 했습니다(12-16절).

상황을 파악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이에 백성들이 호응하여 “일어나 건축하자”하며 모두 참여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초조함을 갖고 열을 내어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헐박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계획을 추진해갑니다(17-20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묵상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시작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성실함과 희생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빌 4:13). 그리고 방해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방해되는 도전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소서. ② 이순주 평신도 단기선교사(우간다)와 추진희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지역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보 문에는 예루살렘 성 건축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양한 층이 참여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모두가 협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들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함께 일했을까요?

먼저 성직자들이 술선수범 하였고, 백성들 모두가 따라갔습니다(1절).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엔 앞장을 서야합니다. 그런데 앞장 서서 일하면서 늘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앞장섰지만 타락했습니다. 결국 실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하지 말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엔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2-11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는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남녀노소의 구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여인들이 주의 일에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평신도 선교사들(일본의 유병세, 리비아의 이병석)과 협력선교사들(수단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는 말을 이방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곽 쌓는 모습을 보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비웃음과 저주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 전체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6절)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사람, 암몬사람, 아스돗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소동을 일으킬 것을 함께 꾀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대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10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을 막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성을 쌓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 대적들은 다 각기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적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뛰어납니다. 믿는 성도에 대한 세상의 대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웃으시고 결국에는 그 적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신다고 약속하십니다.(시2:4, 9) 결코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어떤 일만 생겨도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환난 날에 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기습에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투가 장기화되면 분쟁의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까지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17절) 일을 하면서도 대적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대적 마귀에게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일을 대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손에는 쟁기와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다는 것은 전심전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맞아 참된 성도의 공동체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중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20절). 악한 세상에 둘러 싸여 있는 우리의 현실은 성도가 성도를 돕는 중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적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성벽을 계속 쌓을 수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와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로 서로를 중보하고 돕는 공동체성에 있는 것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20절)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폐하셨다”(15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게 하옵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역사 학자들은 로마제국이 멸망한 것이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인 자신의 방탕과 타락이 이미 로마의 정신을 멸망시켰고 나중에 멸망된 것은 단지 로마의 겉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민족도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아내었지만 진짜 심각한 적은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의 위협을 크게 네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1) 식량난 - 2절 (2)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 3절 (3) 세금의 과중함 - 4절 (4) 인신매매 - 5절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1) 이자받는 것을 금함 - 10절 (2)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줌 - 11절
(3) 부자들로 하여금 맹세를 시킴 - 12, 13절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느헤미야의 정의심이 이러한 일을 이루어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 나와있는 “크게 노하여”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를 통해서 분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유다 민족 내에 이루어 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입니다. (9절)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통해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ㄱ 헤미야는 모든 지도자들의 모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실한 인물입니다. 그의 신실성을 본문 말씀은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14절) 느헤미야의 총독 임기는 “아닥사스다왕 20년부터 32년 까지” 총 12년이었습니다. B.C 444 - B.C 433까지의 기간입니다.

둘째, 토색하지 않았습니다.(15절) 토색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겁게 하다란 뜻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셋째,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16절) 이 말은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축재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모든 식사를 사재로 충당했습니다.(17-18절) 자신의 참모나 신하 혹은 손님들을 대접할 때에도 공금으로 하지 않고 세금도 걷지 않고 자신의 사재로 했다는 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양이 4백명 이상은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18절)

이 모든 당연한 권리를 느헤미야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빌3:8)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도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더 첨가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눅9:23) 그렇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어 간다는 소식에 산발랏 일당은 다시금 계락을 짜기 시작합니다. 성벽건축을 주도하는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들을 계속 가하므로 급기야 성벽 건축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위협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이려는 음모(1-4절) 2) 느헤미야에게 모반의 누명을 씌우려고 함(5-9절)

성벽 건축은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전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언젠가는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인간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보다 열심이고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빈틈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자신의 부족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삶입니다.

“손이 피곤하다”(9절)는 말은 마음이 약해져서 일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위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도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발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딤후 6:5) 오늘날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마야라는 선지자도 선지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두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스마야가 처음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아울러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지자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12절)에 그는 애초에 선지자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십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제사장 이외에 외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민18:7)는 사실을 잘 알고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깨닫는 영을 주셨습니다(12절). 결국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완공되었습니다. 52일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엘룰월 이십오일”(15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태양력으로는 주전 444년 9월 10일에 끝난 것이 됩니다. 한여름의 더위와 대적들의 위협을 딛고 만들어 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16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② 10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월 한 달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서와 같은 장소에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연이어 기록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첫 번째 편지의 답장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재림에 관한 그의 가르침(살전5:1-11)에 관하여 다소 오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다(살후2:2).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벌써 심판이 시작되었고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믿었다. 이 교리적인 문제가 가져온 혼란은 심각한 것이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그치고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살후3:6,11). 따라서 바울은 이 재림의 탈선적 경향을 엄히 꾸짖고 건전한 재림 신앙을 가르치고자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살전을 통해 가르친 내용을 꼭해하고 잘못된 종말관을 유포함으로써 바르지 못한 행동을 자행하는 풍토를 조성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훈계와 권면을 간략하며 단호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먼저 설명한 후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구현해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해 기록한 살전의 사상이 본서에서는 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상황과 그들을 바라보며 편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성도의 삶, 미혹을 이기는 성도의 삶, 서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기본구성

1:1-2	인사
1:3-4	감사
1:5-10	격려
1:11-12	기도 기사
2:1-12	불법의 발흥과 몰락
2:13-14	감사
2:15	격려
2:16-17	첫 번째 소원 기도
3:1-2	기도의 요청
3:3-4	확신의 표현
3:5	두 번째 소원 기도
3:6-31	계으름에 관하여
3:14-15	징계에 관하여
3:16	세 번째 소원 기도
3:17-18	마감인사

제 1 과: 데살로니가후서(1)

고난을 견디는 성도의 삶

찬 송 / 519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3-12

먼저 읽기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대 기독교 교부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어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핍박이라는 기독교의 장애물이 오히려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한국의 기독교는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종교의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 살고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경찰의 눈을 피해 지하에서 은밀하게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키고 이들은 여전히 순교의 현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의 끊임없는 부딪침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예수 믿으면 현세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부터 돌아서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힘들어하는 교구 식구가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의 섭리의 손안에 있게 하는 그러한 상태는 참으로 행복하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윌슨과 동일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3-4] 감사와 자랑

사도 바울은 1, 2절의 인사에 이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함을 지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서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사뭇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에 관하여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1.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냈을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살전 3장 5, 10, 12절 -

2. 3절을 통해 사도바울은 전서에서 언급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두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①

②

3. 성경은 자랑함에 있어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성구에서 말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① 고전1:31, 고후10:17 -

② 자랑의 원칙 -

4. 이 원칙에 입각하여 본다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가장 근본된 핵심은 무엇인가요?

① 자랑의 근본 -

[1:5-10] 격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언급한 자랑함의 증거들에 있어, 특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8절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한 자들과는 정반대 되는 판결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9절과 10절로 이어지면서 고난과 영광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1:28에서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행14:22) 환난을 일으키는 자에게 있어서는 물론이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난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 5절에서는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이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고난 -

② 하나님의 뜻 -

6. 6절에서 9절에서는 각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대가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① 환난 받게 하는 자들 -

② 환난 받는 우리 -

③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

7.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① 롬8:17 -

② 10절 -

[1:11-12] 기도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새롭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8. 11, 1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11절 -

② 12절 -

9.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다운 삶을 사는 자를 두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① 5절 -

② 11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앞서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에서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쁨에 넘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이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필자들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에 대해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간에 서로 세우고 자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의 성장소식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올바른 교회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우리 안에 잠재된 개교회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며 전 세계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올바른 성도의 삶에 관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2.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그 박해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다는 사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참된 순종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차지할 기업에 대한 확실한 증거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기를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도 즐거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마5:11, 12와 그 병행구인

눅6:22, 23). 그러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고난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도 삶의 고난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것들에 관한 혼동이 생길 경우에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짊어져야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3. 자기 백성을 불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살전 2:12)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시며,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들의 주가 강림하실 때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야 하듯이 주는 그들의 현재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주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씩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고후 3:18)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성도, 즉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2 과: 데살로니가후서 (2)

미혹을 이기는 성도의 삶

찬 송 / 168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1-12

먼저 읽기

1833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메리라는 여신도는 1843년에 이 세상의 종말이 되어 예수가 재림한다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1843년 약속한 날 모두 흰옷을 입고 뉴욕에 모여 예수의 재림을 환영하는 준비를 하였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메리는 자기의 계산이 좀 앞섰다면 1847년이라고 다시 선포하였고, 187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재차 선포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속았음에도 매번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고 그 추종자들은 메리가 죽은 후에야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차례에 걸쳐서 휴거설과 재림설이 교회를 미혹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1992년 휴거설과 1999년 종말론, Y2K로

인한 종말의 도래... 실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영화나 소설의 많은 주제를 통해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그 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징조가 나타날 것을 밝힘으로서 종말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혹심한 박해로 인해 주의 날이 벌써 임했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재림에 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여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가르침은 받았으나 이제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짓소문이 교회안에 편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12] 불법의 발흥과 몰락

사도 바울은 재림에 관한 거짓된 소문들을 바로잡기 위해 재림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며 이미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이 막는자로 인해 은밀히 진행되어 왔으나 드러나게 되고 종국에는 주 예수께서 사단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소문들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 3절에서 사도바울은 재림의 때가 언제 임한다고 말합니까?

3.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① 4절 -

4. 이 불법의 사람은 언제 활동한다고 했습니까?

① 7절a -

5. 불법한 자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8절에서 보여지는 전사와 같은 메시아의 모습은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후에 묵시사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재림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① 사11:4 -

② 말4:1 -

6.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한다(살전2:16, 고전10:33)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는 속임으로 임하는데, 그 악한 자는 사탄으로부터 어떠한 권세를 얻었습니까?

① 9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살전5:2-6에서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해서 부주의한 자들을 놀라게 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당황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로부터 받은 가르침과도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생각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도 알지 못했으니 우리들도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다만 추정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2000년을 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의 시대에도 종말이 임했다고 외치는 예언이 유포되었던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IMF를 거치면서 새 천년을 맞으면서 이상하리 만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케하는 손길들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이단의 전도자들로 인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미혹케하는 자와 그들의 미혹케하는 말에 대한 우리의 바른 대응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3 과: 데살로니가후서(3)

서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

찬 송 / 483장

읽을 말씀 / 2:13-3:5

공부할 말씀 / 2:13-17,

3:1-5, 3:16

먼저 읽기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왕이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잡아죽이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기로 한 전날, 성도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 나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여종은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미쳐 열어주지도 않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집안은 여종이 미쳤다고 비웃는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종은 굴하지 않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사실이라고 말하자, 그 무리중의 한사람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

다. 결국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베드로가 서있는 것을 보고 놀라 술렁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는, 주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 자기를 감옥에서 구해낸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얘기를 마친 베드로는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라는 말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놀라운 힘에 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를 살펴 보면서 우리안에 서로를 위한 기도의 불꽃이 더욱 활발하게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2:13-15, 3:3-4]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와 확신

주의 날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궁금중의 해소를 위해 적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마친 사도 바울은 다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2장 15절에서는 이렇므로 ‘유전’을 지킬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전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들에 관한 확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권고하는 이유와 오늘을 사는 성도를 향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① 2:13 -

-
2. 다음의 구절을 참조하면서 지켜야 할 유전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① 3:6,7 ② 골2:8 ③ 마28:20 ④ 고전11:23 ⑤ 막7:8

[3:1-2] 기도의 요청

사도로서의 자신의 활동을 '달음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된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 다음에서 사도들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① 롬15:30 -
② 고후13:11 -
③ 엡6:19 -
④ 빌1:19 -
⑤ 골4:3,4 -

4. '달음질'에서 달리는 대상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사도들의 기도 요청의 주된 목적 무엇입니까?

① 3장 1, 2절 -
② 엡6:19,20 -
③ 골4:3,4 -
④ 목적 -

[2:16-17 / 3:5, 16]바울의 세가지 소원 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바울은 동일하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음을 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드린 세 번의 소원기도의 기도제목과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첫 번째 소원기도 (2:16-17)

기도제목 -

의미 -

② 두 번째 소원기도 (3:5)

기도제목 -

의미 -

③ 세 번째 소원기도 (3:16)

기도제목 -

의미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온 세계 앞에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선택하셨다는 것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전적인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응답은 적절한 때에 그들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롬8:30)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삶과 믿음에 있어 유효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구를 향한, 충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의 순종함은 어떠한 모습일지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바랍니다.

2. 교역자들은 함께 호흡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기에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역자들의 일은 반대와 방해로 몹시 받고 있는 일입니다. 교역자들의 일은 인간의 동역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교역자의 마음과 교인들의 마음을 좀더 밀접하게 연결시킬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의 두가지 목적 중 한가지는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것이며 다른 한가지는 방해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충현의 교역자들을 위한, 우리 교구 교역자들을 위한,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눈 후, 오늘 모임을 마치기 전에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제 4 과: 데살로니가후서(4)

성도의 삶(결론)

찬 송 / 518장
읽을 말씀 / 3:6-18절
공부할 말씀 / 3:6-15

먼저 읽기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즈 섬에 벌통이 처음 이식되었을 때, 벌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꿀을 모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벌들은 그들이 살게 된 새 땅에는 1년 내내 여름만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힘들었던 꿀 모으기에서 해방이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벌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꿀을 모으는 것으로 하루 하루를 보냈던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동안 그들이 고작 한 일이라곤, 침으로 사람들을 쏘아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가운데서도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에 금새 익숙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곤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과를 공부하며 성도의 삶에 관하여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6-13]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

사도의 권위는 그리스도가 파송한자에게 그의 권위가 위임되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고전5:4).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와 동일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본문 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을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삶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의 삶의 본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6절에서 나타난 경고는 무엇입니까?

① 경고 -

2. 특히 '규모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② 의미 -

3.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사도 바울에게서 본받아야합니까?

① 살전1:6

② 고전4:15,16

③ 고전11:1

④ 빌4:8,9

4. 7절에서 12절이 언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5. 다음 성경의 두 부분을 비교하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① 마 10:10 -

② 살후 3:7-9절 -

③ 이유 -

6.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전15:58 -

② 갈1:9 -

③ 빌1:27,28 -

[3:14-15] 징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징계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
7.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징계와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마18:15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데살로니가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에서도 게으른 사람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학자들은 주의 날이 임했거나 가까웠다는 확신에 있었는지도 모르며, 그들이 특별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 손으로 일해서 먹고사는 것과 같은 세속적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거나, 남의 일에 간섭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아니면 이 두 요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 밖의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저지르기 쉬웠던 해악이 우리구역과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행동을 단호하게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규모 없는' 행동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의무를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은 기회 있는 대로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소문을 실천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만큼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포함해서 신약의 편지들이 윤리적인 덕목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윤리적 명령은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게으르거나 남의 일에 간섭을 함으로써 교회에 오명을 끼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즉각적이고도 공식적인 출교를 명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은 그들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여 교회로부터 추방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잘 인도해서 그가 믿음의 공동체의 한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형제처럼 대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경계의 목적은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구안에서 혹은 교회안에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함이 성경적인지 함께 생각하고 나눠봅시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6 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찬 송 / 505장
읽을 말씀 / 롬 8:28-30
외울 말씀 / 롬 8:28

롬8:28-30을 읽으십시오.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
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1.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당신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29절, 30절 참조)

 3.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정리하여 봅시다.(롬8장 30절, 34절, 26절)

 4.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그런 일까지도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요23:10).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일들이 어떻게 작용했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예-사업이 부도가 났지만 그 일로 인하여 더욱 더 겸손하게 되었음)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일(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한 부분):**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일(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한 부분):**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이니라.

막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
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16:18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5.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품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는 것입니
다(마11:28,29). 또 다른 측면은 능력 면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
이라고 하시고(요14:12)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하십
니다(막16:17,18).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품과 능력의
두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품의 측면과
능력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이 일은 어떤 방법론에 의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오직 주
님을 믿고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
6. 오늘의 공부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과 각 사람의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공부를 마무리하십시오.

MEMO

MEMO

OKIM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